

## 가. 화장실 변기 물 내리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1) [시력 잃고 알게 된 세상] 하잘것없이 하찮지만, 생각보다 소중한  
하고 필요한 것들

🕒 **사는이야기**

🕒 **김승재(raepa)**

22.11.28 11:02 | 최종 업데이트 22.11.28 11:02

🕒 극씨 크게부기

🕒 인쇄

🕒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56

🕒 2

🕒 공유

언젠가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조문을 마치고 마침 그곳을 찾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문객이 늘어나 자리가 부족해졌다. 식사까지 마친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일어섰고, 고맙게도 한 친구가 날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

"잠깐만, 신발이 너무 많네. 내가 네 신발 찾아 줄게. 어디에 뒀어?"

내 신발은 나와 동행했던 친구가 치웠을 텐데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래도 난 내 신발 색이 특이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디 뒀는지는 모르지만 내 신발 색이 좀 특이해서... 썩색이야. 썩색 단화."

"썩색이라... 근데 안 보이네."

다른 친구까지 합세해서 신발장을 가득 채운 신발은 물론 바닥에 어지러이 놓인 것까지 살폈지만 내 신발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상주인 친구까지 나서서 혹시 누군가가 잘못 신고 간 게 아닐 의심할 즈음 난 혹시나 하고 인조 가죽 단화인 내 신발 모양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 이거 아닌가? 근데, 이건 갈색인데..."

이미 1년 넘게 신고 다닌 신발이었다. 난 갈색이란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네가 설명한 모양은 이것밖에 없어. 혹시 모르니까 신어 봐."

"어, 근데 그건 갈색이라며..."

친구가 내민 신발을 얼떨결에 받아든 나는 놀랐다. 새로운 가상의 눈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내 손이 그것이 내 신발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어, 이게 어떻게..."

의아했지만 나는 바닥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신어 봤다. 내 것이었다. 혹시나 해서 일어서서 걸어도 봤다.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 것이었다. 나는 계면쩍게 웃으며 나를 둘러싼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 맞네. 내 신발. 벌써 1년은 넘게 신고 다닌 신발인데 내가 이걸 왜 착색이라고 알고 있었지? 갈색일 줄 정말 몰랐네, 히히."

모두가 웃었고 당연히 애정 어린 타박도 받았다.



▲ 당연히 보이는 신발의 색. 때론 그 당연함이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 © 김승재

##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것들

시력을 잃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정말 사소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멀쩡하던 컴퓨터가 멈췄다. 화면에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고 확인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시각 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까지 멈췄다. 나는 멍하니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도서관 장애인 열람실. 내 방처럼 혼자 여유 있고 편하게 이용해서 좋다. 그러나 케이스에 넣으려던 무선 이어폰 한 짝을 떨어뜨리고 5분

넘게 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보지만 알맞게도 그건 찾아지지 않는다.

깔끔한 최신 공중화장실. 볼 일을 마치고 이제 물만 내리면 되는데 흔히 있는 물통도 없고 물내림 단추도 없다. 당황해서 변기 여기저기를 더듬고 벽까지 더듬어 찾아보는 사이 밖에서는 누군가가 연방 노크를 해댄다.

홀로 남은 가을 저녁. 제법 굵직한 가을비 소리에 단풍과 더불어 내 마음마저 차분히 젖어 들면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난다. 지갑에는 돈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도 있지만, 그날따라 가족 모두 외출 중이다. 갑자기 막막하다 못해 비참해진다.

열 개 아니 백 개라도 얘기할 수 있다. 모두 하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렇게도 사소한 것들은 언제나 내 곁에 그림자처럼 있었지만 남의 도움은 그렇게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짜증도 났고, 한심한 내 모습에 절망도 했다.

그런데 뒤늦은 깨달음이랄까, 가만히 그런 나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옛날 황제나 왕 곁에는 언제나 환관이나 시녀가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잠을 잘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용변을 보거나 남녀 간에 은밀한 일을 행할 때조차 그들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내가 이런 황제나 왕의 위치에 있다면 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난 그럴 수도 없고 결단코 그럴 생각도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하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내 일상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보지 못하는 눈만 탓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투덜대고 신세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흔히 말하는 '당연하다'는 것은 때에 따라 무척 상대적이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다.

당연히 알았을 갈색 신발, 당연히 눌렀을 확인 단추, 당연히 눈으로 찾았을 떨어진 무선 이어폰이나 변기 물내림 단추, 당연히 우산 하나 들고 나가서 사 왔을 막걸리지만 내겐 당연한 게 아니다. 너무 어렵거나 때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확실한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의외로 간단한 대안이 있다. 옛날 생각은 이제 그만 그리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새로운 건 그때그때

배우면 된다.

신발이나 옷 색깔은 외출 전에 확인하고, 음성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췄다면 윈도 자체 음성 기능 사용법을 배워서 이용할 수 있다. 낯선 화장실이나 시설을 이용할 땐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 배우면 된다. 혼자 갈 일이 많을 것 같은 곳은 가는 길을 익혀두고, 편의점 같은 곳에 서는 주인이나 점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떨어뜨린 물건을 찾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미리 확인하고 끊임없이 배울 일이지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한참 떠돌고 보니 우습게도 만사에 초연한 성인군자 같다. 눈치챌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 당연히 오버하는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쓰는 날에도 수백 아니 수천 번은 오갔을 부엌 식탁 의자를 걷어차서 엄지발가락 발톱이 깨졌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하는 사소한 것 그러나 내 일상에선 너무도 소중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기에 오버라도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걸 돕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나 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제공된다. 일반 폴더폰을 사용하다가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아무 느낌 없는 매끈한 화면에 황당함을 넘어 막막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내장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실행시키고,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 심지어 세 손가락과 네 손가락까지 사용해서 화면을 터치하거나 좌우 또는 위아래로 쓸다 보면 내 능력이 닿는 한 맘껏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 음성 인식 기능까지 더해지니 오히려 기존 폴더폰보다 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고대비로 화면을 조정하고 아무리 글자 크기를 키워도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컴퓨터 화면에 절망할 무렵, 시각 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를 사용하면서 내 컴퓨터 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마우스 대신 키보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해서, 'Contl + C'나 'Contl + V'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단축키는 물론 화면 전환, 인터넷 검색, 편집창 이동 메뉴 선택 등 마우스 클릭 한 방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던 모든 걸 키보드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해야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맘껏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놀람이요, 기쁨이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 이용하는 도서관 장애인 열람실 내부에 책상은 어떻게 배열돼 있으며, 의자나 책장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 집 내부 구조와 가구 배치의 물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구조까지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배우고 익힐 게 너무 많았다.

수많은 앱이나 프로그램은 화면 디자인이나 효율성을 높이려고 모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메뉴나 실행 단추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내가 노력할 일이지 누굴 나무랄 일이 아니다.**



## 나. 우울감 바닥 쳤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머피의 법칙

### 1) [시력 잃고 알게 된 세상] 큰 힘도, 높은 벽도 될 수 있는 한마디 말

🕒 사는 이야기

🕒 김승재(raepa)

22.11.21 11:41 | 최종 업데이트 22.11.21 11:41

🕒 극씨 크게보기

🕒 인쇄

🕒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36

🕒 1

🕒 공유

몇 달 전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 마음먹었을 때는 좀 오버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왕이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궁상떠는 찌질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게 맘 같지 않았다. 이야기 하다 보니 아팠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걸 그냥 다시 묻어두기가 힘들었다.

무슨 억지 눈물 신파극이냐는 소리 듣더라도, 무슨 일기장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느냐는 소리를 듣더라도, 독하고도 끈질기게 자꾸만 꼬물꼬물 비집고 나오는 그 아픈 기억을 털어버리고 싶었다.

웬만큼은 다 털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비집고 나온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어진다. 거기다가 아직도 들려오는 장애인들의 힘든 이야기는 이런 나를 더욱 부추기고 밀어댔다. **육체적 장애로 인해 감겨 버린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도 그래야겠지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나 같은 장애인들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손끝에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종일 신경 쓰이는 게 우리 인간 아닌가. 그런데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로 몸 어딘가가 망가졌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걸 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장애인들의 감정 상태는 절망과 우울함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장애인들은 어떻게든 절망과 우울의 감정



을 떨쳐 버리려 항상 노력해야 한다. 설령 다소 오버라고 느껴지더라도,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더라도,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때 반드시 내가 아닌 '남'이 필요하다. 비록 노력도 행동도 내가 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아니라 남과 함께할 때 훨씬 좋다는 걸 느껴야 하고, **내 옆에는 나를 도와줄 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와 같이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염치 불고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다. 근데 막상 당하는 나 같은 장애인으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먼저 하고픈 아쉬운 소리는 우리 장애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친하고 편하더라도, 그냥 한두 마디 지나가는 말이나 글이라든, 낯지 않는 몸의 상처가 마음으로 번져가는, 그래서 어쩌면 아이처럼 약해져 버린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한다. 요즘 유행하는 꼰대 같은 말투나 태도는 정중히 사양한다.

## 결심할 때마다 꼭 벌어지는 일

'머피의 법칙'이란 게 있다. 뭘 하려는데 꼭 원치 않는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내게도 나만의 머피의 법칙이 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질병인 우울증이 도질 때면 나는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청승을 떨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궁상을 떠든다. 참으로 우울한 음악까지 틀어놓고 새삼 신세타령을 덧붙이다 보면 다시 절망의 늪에서 헤매며 마음의 눈까지 멀어간다.

그러다 문득 그런 나 자신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각오를 다지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바로 이때 여지없이 나만의 머피의 법칙이 나타난다.

으라차차 힘내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 이상하게도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가 그 주먹에 맞아 나가떨어지거나 물 컵이 엎질러진다. 기운차게 각오를 다지려고 몸을 벌떡 일으키면 책상 모서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내 무릎과 부딪쳐 눈물까지 찔끔거리게 한다. 뭔가 해보겠다고 기운차게 밖으로 나갈 때면 여지없이 문 모서리가 얼굴이나 입술에 부딪혀 가끔은 피까지 보게 만든다.



▲ 나만의 머피의 법칙. 따뜻한 한마디면 거뜬하게 날릴 수 있다. © 김승재

아내나 친구들의 도움에 고무되어 세상을 만나러 기분 좋게 밖으로 향할 때면, 이상하게도 옆 사람이 들고 있는 음료수병이나 휴대폰이 내 손이나 팔에 부딪혀 저만치 날아가 버린다.

머피의 법칙은 언제나 예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엄청나게 그걸 뺑뚱기해서 자기에게는 항상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당연히 나도 그렇다. 나만의 머피의 법칙이 100%일 리도 없고, 내가 못 보는데도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연히 그런 게 아니란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기껏 기운을 북돋웠는데, 어렵게 우울과 절망과

싸웠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럴 때 남이 참 중요하다.

"에이, 조심하지. 왜 그렇게 덤병대."

"뭐 하는 거야? 에이, 아까워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지나치게 까분다 싶더니만."

조금도 틀린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근데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심하게 위축된다. 어렵게 다졌던 각오는 온데간데없어지고 마음속에선 더욱더 깊고도 어두운 기운이 번져간다.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거나 내 행동으로 맘이 상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아이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한다면, 어쩌면 감정이 아이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난다.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이런, 기운이 너무 넘쳤네. 그래, 그렇게라도 기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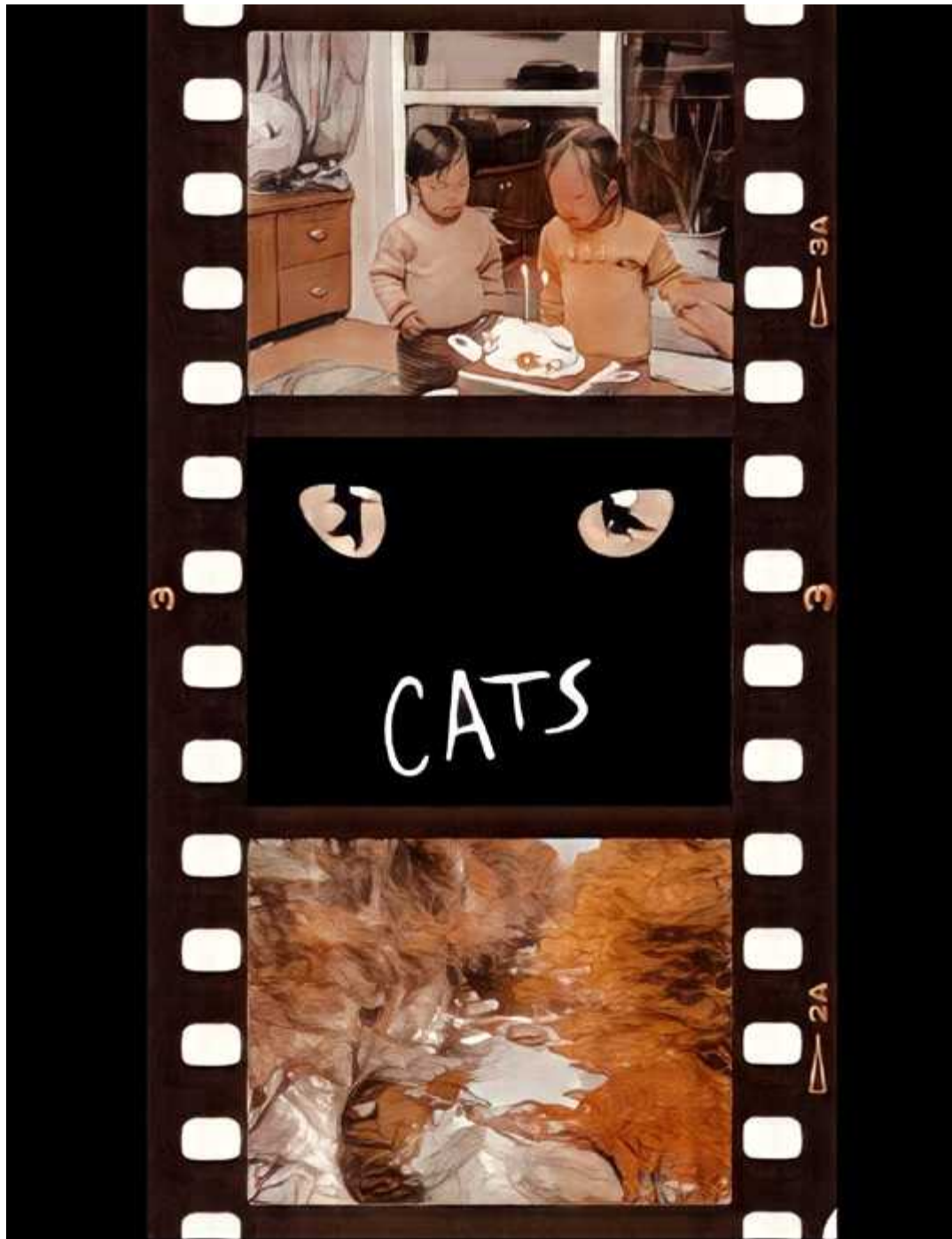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별로 힘들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아이한테 대하듯 말을 했으면 한다. 아이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경험도 없어서 실수한 거란 걸 잘 알기에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리라. 그런 면에서 장애인도 실수한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한다.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나누면 절반이 되는 슬픔과 괴로움도 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놓고 싶어진다. 아무리 가상의 눈을 동원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남들의 눈을 빌려 그 그림에 덧칠해 봐도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싶단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다.

## 감정에 반하는 말은 노맹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내가 직접 찍었던 아이들의 동영상을 들을 때면 너무도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래도 보고 싶단 생각이 그만큼 더욱더 간절하다. 좋아했던 영화나 뮤지컬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봤던 멋진 경치 앞에 다시 섰을 때도 그렇다.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푸를 가을 하늘을 상상해도 그렇고, 화려한 군무를 즐기는 오색의 나비처럼 이리저리 공기까지 물들이고 있을 단풍을 그려봐도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단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



▲ 어쩔 수 없는 그리움. 때론 슬픔으로 때론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절반에 또 절반으로 가벼워진다. © 김승재

그러다 보면 기분 좋게 잘 있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  
다. 그리고 점점 농도를 더해가는 답답하고도 우울한 그 감정을 떨쳐  
버리려고, 그래서 절반으로, 다시 절반으로 그걸 나눠보려고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있다.

"왜 또 그런 소리 해? 장애인 올림픽 보니까 팔다리가 모두 없어도 수영을 하더라. 넌 그 사람보단 낫잖아?"

"쓸데없는 소리. 그럴수록 속만 상하지. 이젠 잊어버려."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봐도 별거 없어. 네 기억 속이 더 맛있을 거야."

역시 틀린 말이 아니고, 날 공격하는 말도 아니다. 근데 상처가 남는다. 더욱 심하게 조여오는 답답함에 더해 괜히 말을 꺼냈다는 후회까지 한 몫한다.

"그렇겠다. 정말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렇지? 나도 또 봐도 좋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에이, 정말 그렇겠다. 네 눈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저기..."

조금씩 더해가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든다. 맘으로 느껴지는 공감에 한두 마디 더 하고 나면 어떨 때는 거짓말처럼 맘속을 가득 채웠던 답답함과 우울함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상태와 비슷한 말과 행동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우울할 때 쾌활한 말이나 슬플 때 기쁜 말과 행동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고 보니 우연히 인터넷에서 들었던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딱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네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너만 생각하니,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네 심정이 어떨지 잘 알아."**

**"힘내. 너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많아."**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애써 당사자의 감정에 반하는 말은 노땡큐다.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또 다른 책망이요, 정신적 가해에 불과할 뿐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한다.

갑자기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장애인들이 항상 이렇게 속이 좁다는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다만 평범한 이 세상과 만나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다. 그때 남의 말과 태도가 엄

청나게 큰 힘도 되고, 높은 벽도 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아, 그런데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곧대의 말투보다는 공감 어린 따뜻한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장애인 #머피의 법칙 #공감

구독하기 [프리미엄](#)

다. 시력 잃고 알게 된 세상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 36

🕒 1

공유

🕒 시민기자기사쓰기

🕒 시리즈연재발행

🕒 오마이뉴스취재후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타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

10만인클럽프로필사진

10만인클럽 회원

김승재 (raepa) 내방

🕒 [구독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라. 독자의견



마. 나도 파란 하늘 보았다, 망막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1) [시력 잃고 알게 된 세상] 들어가며

🕒 사는이야기

🕒 글김승재(raepa)

🕒 디자인고정미(yeandu)

22.08.15 10:04 | 최종 업데이트 22.08.15 10:04



🕒 극씨 크게보기

🕒 인쇄

🕒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68

🕒 3

🕒 공유

몇 해 전 동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실력은 기본, 친절함까지 갖춘 의사 덕분에 병원 대기실엔 빈자리가 없었다. 간신히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지루함은 끝이 없었다.

바닥을 내려다 보다가 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대던 나는 결국 TV 소리에 멍하니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갑자기 거친 발소리에 이어 코뿔소의 화난 콧김이 느껴지더니 약간은 경멸적인 여자 분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이봐요, 아저씨, 날 아세요? 왜 내 얼굴을 그렇게 뻘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막 엉덩이를 붙이려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 뛰어왔다.

"아, 죄송해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봐서요. 미안합니다."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나도 손에 든 하얀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거듭해서 사과했다. 다행히도 그 여자 분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내게 사과까지 한 덕분에 잠시 싸늘했던 분위기는 흐뭇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다.



© 고정미

나도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한 신분증, 일명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난 또 하나의 다른 신분증도 필요하다. 내가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바로 복지카드다. 복지카드가 없다면 아마도 난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외견상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더군다나 망막이 문제인 나는 눈동자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날 그 여자분도 기다림이 안겨주는 지루함과 짜증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하필 그 자리가 TV 소리를 쫓은 내 시선과 마주치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가 확인해 봤을 것이고, 아니다 싶어 시선을 피해도 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웬 아저씨가 자기 얼굴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으니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도 표정 하나 없는 멍한 얼굴로 말이다. 그 자리에서 찔지게 뺨을 한 대 얻어맞지 않은 것만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마흔을 갓 넘긴 십여 년 전만 해도 나도 예쁜 얼굴을 보고, TV를 보고,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뭉게구름 가득한 파란 하늘을 보며 감탄할 수 있었다. **암전하던 망막색소변성증이란 놈이 느닷없이 위력을 발휘해서 내 망막 기능을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15년 전쯤부터 급격히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의 색깔이 멀어지는가 싶더니 기어코 10년 전쯤에는 사실상 시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지 못한다. 이제는 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아, 그렇다고 그 새로운 세상이 아주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란 뜻은 아니다.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어둠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은 결코 아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흥미도 있다. 그냥 약간 다른,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일 뿐이다.

새롭게 살게 된 세상에서, 나는 눈으로 보는 걸 잃었지만 오히려 다르게 보는 법을 알게 됐다. 손으로도 보고, 소리로도 보고 느낌으로도 본다. 그리고 기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흥미로운 일을 많이 경험한다.

나는 이제부터 그 세상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그냥 부담 없이 막걸리 한 잔 앞에 놓고 수다 떠는 동네 아저씨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인들**

나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눈앞이 아무런 이미지나 무늬가 없는 커튼으로 항상 가려져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 없이 이미지가 생성되고, 마치 보고 난 영화를 회상하거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듯이 장면들이 떠오르곤 한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내가 새로 살게 된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얼굴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성인이라면 10여 년 전 젊음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고, 그 사람이 아이들이라면 미안하지만, 결코 자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난 그들을 모두 기억과 느낌으로 보기 때문인데, 아쉽게도 그 기억은 최소한 10여 년 전부터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누구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내 기억과 감각은 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여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좋은 느낌을 준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라면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것도 수십 년 전 젊은 모습으로 말이다.

물론 그때의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로 인해 간혹 얄밋거나 화난 모습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건 진짜 한순간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좀 부정적 이미지였거나 별로 친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것이 떠오른다. 기억 속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못났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냥 뿌옇고 희미해서 누구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이미 잊힌 사람이리라.

간혹 다시 좋은 인상을 받거나 친해져서 예쁘고 멋진 이미지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이미 정해진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려면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감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십여 년 전만 해도 나도 예쁜 얼굴을 보고, TV를 보고,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뭉게구름 가득한 파란 하늘을 보며 감탄할 수 있었다. 암전하던 **망막색소변성증**이란 놈이 느닷없이 위력을 발휘해서 내 망막 기능을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 pixabay

시력을 잃은 후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이미지가 완성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매너, 심지어 풍기는 내음까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새로운 눈 역할을 한다. 목소리가 예쁘고 매너까지 좋은데, 향긋한 비누 냄새나 화장품 향기까지 더해진 여성을 만난다면 나는 여지없이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과 비슷한 모습을 떠올린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만남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뒷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눈으로 본 그 사람의 이미지는 계속 변한다. 심지어 그 변화가 너무 심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만남이 여러 차례 지속되었는데, 내가 받은 좋은 느낌이 유지되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는 웬만한 연예인 뺨치는 모습으로 확정된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이겠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떠올라 나는 결국 그 이미지를 그 사람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혹시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된다면 십중팔구 못 알아볼 얼굴이겠지만 말이다.

출근하듯 다녔던 도서관의 어느 퇴직을 앞둔 여자 직원분, 언제나 반겨주던 도서관 앞 커피숍과 중국집의 여사장님과 직원들, 우리 쌍둥이와 이 아이들 때문에 모임을 갖게된 성당의 형제·자매님들, 부담 없이 손을 잡고 웃어준 아내의 동창들, 뒤늦게 만난 형수와 제수, 그 밖에도 내 기억 속에서 주연 배우 뺨치는 멋진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대의 경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못생긴 연예인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속 최악의 등장 인물이 떠오르기도 하니까.

이건 사람뿐이 아니다. 건물, 바다, 계곡, 산, 유원지 등등 난 소리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 목이 켄켄하다. 막걸리 한잔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다.